
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 “실효성 있는 상가 임차인 보호 정책 추진할 것” 대전 도시재생 사업지역 및 지역 상가 방문…복지시설 방문 및 위문품 전달도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, 대전 은행동과 대흥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지역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,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가 임대료, 임차인 보호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.
- 김 장관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가로환경 정비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케미스트리트(구 제일극장거리)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지역 관계자들과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.
-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“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 재생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, “정부는 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.”라고 강조했다.
- 이어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상가 번영회를 방문하여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상권 경기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, 임대료 부담 정도,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.
- 김 장관은 “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는 물론, 상가 분야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상가 임차인 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-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후 김 장관은 인근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와 전반적인 전통시장 체감경기를 점검하는

한편, 최근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.

* '17. 8. 9. 화재 후 점포 복구 중, 현재 일부 점포는 대전시 및 동구청이 지원한 임시 점포로 운영 중

- 상인들은 김 장관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하면서, 우리나라 경제가 좀 더 활기차고 건강해져서 국민들의 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.
- 시장 방문을 마친 김 장관은 '대전시 노인복지회관'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문하고,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쌀, 과일, 이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.

2018. 2. 13.

국토교통부 대변인